

광주FC서 뭉친 '금호고 황금멤버' 올 시즌 일낸다

2017~2019년 고교대회 우승
엄지성·허율·정호연·주영재·조성권
프로에서 호흡 시너지 효과 기대

2017~2018년 백운기전국고교축구대회, 2018~2019년 전국고교 축구선수권, 2019 K리그 U-18 챔피언십, 2019 전국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우승. 대회 최우수선수, 득점왕 등의 타이틀도 쌓아왔던 '금호고 황금멤버'들이 당시 뭉쳤다.

광주FC가 1부 리그로 복귀하게 된 2023시즌 '금호고 황금멤버'에 눈길이 쏠린다.

K리그의 산실로 자리잡은 광주에서는 매년 유스팀 금호고 출신의 '갯벌'들이 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 시즌에도 '에이스' 엄지성이 K리그2 영플레이어상 주인공이 됐고, 단국대를 거쳐 프로 무대에 도전한 정호연은 36경기에 나와 '개근생'으로 활약하면서 팀 우승의 주역이 됐다.

'장신 공격수' 허율도 6득점 4도움을 기록하는 등 금호고 동문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올 시즌 금호고가 더 강해진다. FC목포로 임대됐던 주영재가 팀으로 복귀했고, 금호고 완장을 차고 U-18 챔피언십 우승트로피와 최우수선수상까지 거머쥐었던 조성권(DF)이 울산대를 거쳐 프로 무대에 뛰어 들었다.

이들이 프로에서 다시 뭉치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금호고 당시 정호연이 3학년 '주장'으로 팀의 우승을 이끌면서 2018년 전국고교축구선수권 대

회 최우수 선수상(MVP)을 받았고, 허율과 조성권이 2학년 그리고 엄지성과 주영재가 1학년이었다.

'신인'으로 프로 첫 동계훈련을 소화 중인 조성권은 "구단에 (허)율이란 금호고에서 있던 형들이 있어서 편하다. 적응을 다 한 것 같다"며 "오랜만에 (금호고)애들이랑 축구를 하게 돼서 설렌다. 광주에서 새로운 축구, 발전된 모습 보이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주영재도 광주에서 새로 시작하는 올 시즌이 특별하다.

주영재는 "올이 형 옆에 잘 붙어서 잘 적응하고, 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광주로 돌아와) 새로운 느낌이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축구 배울 수 있어서 좋다"며 올 시즌 기대감을 보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에 뛰어들면서 프로 4년 차가 된 허율은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는 것 같다. 고등학교와 프로와는 다르니까 성권이랑 영재 잘 챙겨주면서 도와주겠다"며 "금호고 전성시대"를 예고했다.

프로 2년 차의 '말형' 정호연도 후배들이 있어 든든하다. 정호연은 후배들이 한목소리로 짚는 금호고 시절 최고의 '모범생'이기도 하다. 정호연도 "가장 착실한 선수"로 자신을 언급할 정도.

정호연은 "모든 면에서 다 FM이었다(웃음). 지난해 동계훈련 때는 혼자 있어서 적응을 잘하지 못했다. 첫 시즌은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다"며 "동계 때 잘 배워서 작년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동계훈련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유스팀인 금호고 출신의 주영재(왼쪽부터), 조성권, 정호연, 허율이 지난 3일 태극 동계훈련 출발에 앞서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금호고 황금 멤버' 중 한 명인 엄지성은 이날 인천 공항에서 팀에 합류했다.



황희찬이 8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2-2023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라운드에서 후반 21분 동점골을 터트린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소' 황희찬, 리버풀 상대 시즌 1호골

FA컵 3라운드 교체투입 3분 만에
울버햄프턴, 재경기로 승부 가려

'황소' 황희찬(26)이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프턴에서 이번 시즌 첫 득점포를 가동했다. 황희찬은 8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2-2023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라운드(64강전)를 벤치에서 시작한 뒤 후반 18분 후반 네베스 대신 투입, 후반 21분 2-2로 균형을 맞추는 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 황희찬이 울버햄프턴에서 기록한 첫 골이다. 황희찬이 울버햄프턴 공식전에서 골을 넣은 건 지난해 2월 아스널과의 리그 경기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지난 시즌 울버햄프턴에서 리그 5골을 넣었던 황희찬은 이번 시즌 들어서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가운데 좀처럼 골맛을 보지 못하

고 앞서 도움 2개만 기록 중이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2-1 역전승을 완성하는 극적인 결승 골을 넣으며 한국의 16강 진출에 앞장선 그는 이후 소속팀에서의 입지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성적 부진으로 월드컵 전 경질된 브루누 라즈 감독의 뒤를 이어 울버햄프턴의 지휘봉을 잡고 월드컵 이후 본격적으로 이글기 시작한 훌렌 로페테기 감독은 황희찬을 연이어 선발로 기용했다.

황희찬은 이날은 교체 명단에 포함됐다가 팀이 1-2로 끌려다니던 상황에서 조커로 투입됐는데, 제몫을 확실히 해내며 존재감을 더욱 깊이 각인했다. 황희찬의 동점 골로 울버햄프턴은 패배 위기를 모면하고 리버풀과 2-2로 비겨 재경기로 다음 라운드 출전 여부를 가리게 됐다.

이날 울버햄프턴은 상대 실수에 힘입은 행운적인 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후반 26분 리버풀 알리송 골키퍼가 페널티 지역 가운데서 강하게 찬 공이 압박을 시도한 곤살루 게드스의 발에 걸렸고, 게드스가 바로 오른발 슈트를 때려 골문을 흔들었다.

하지만 리버풀은 전반 45분 다르린 누네스의 동점 골로 균형을 맞췄고, 후반 7분엔 무함마드 살라흐의 역전 골까지 터져 흐름을 바꿨다.

이후 로페테기 감독은 후반 18분 황희찬을 비롯한 3장의 교체 카드를 한 번에 가동했고, 황희찬이 위기에서 팀을 구해냈다.

후반 21분 마테우스 쿠냐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공을 찰러주자 황희찬이 절묘하게 미끄러져 들어가며 밀어 넣어 시즌 첫 골을 뽑아냈다.

후반 36분엔 황희찬의 패스에 이은 토트 고메스의 슈트가 들어가 황희찬이 도움을 추가할 뻔했으나 오프사이드가 지적돼 재역전 득점이 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이강인, 원발 프리킥으로 팀 승리 이끌어

2022-2023 라리가 16라운드
마요르카, 바야돌리드 1-0 꺾어

스페인 프로축구 마요르카에서 뛰는 이강인(22·사진)이 결승 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강인은 8일(한국시간) 에스타디 데 손 모시에서 열린 레알 바야돌리드와의 2022-2023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16라운드 홈 경기를 벤치에서 시작한 뒤 후반 17분 다니 로드리게스 대신 투입돼 끝날 때까지 뛰었다.

이강인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마치고 마요르카에 복귀한 이후 지난달 21일 3부 리그 레알 우니온과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레이) 2라운드(1-0



후반 추가 시간 아브돈 프라츠가 기록한 결승 골의 발판을 보았다.

후반 추가 시간 4분이 거의 흘렀을 때쯤 마요르카가 오른쪽 측면에서 획득한 프리킥 상황에서 이강인이 원발로 차올린 프리킥이 동료의 머리를 정

승)와 31일 헤타페와의 리그 15라운드(0-2 패)에 연이어 선발 출전했다가 이날은 교체로 투입됐다.

0-0 균형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그라운드를 밟아 세트피스 상황에서 키를 전담하고 예리한 패스를 뽐내던 이강인은

확히 겨냥했고, 파블로 마페요를 스친 뒤 아브돈 프라츠의 헤더 극장 골이 됐다.

이강인의 도움으로 기록이 될 법한 상황으로 보였으나 골대 앞에서 함께 뜬 두 선수를 연이어 맞고 들어간 것으로 기록돼 이강인은 시즌 2골 3도움에서 공격포인트를 더 늘리지 못했다.

지난 라운드 헤타페에 탈미를 잡혀 리그 4경기 무패(3승 1무)를 멈췄던 마요르카는 이강인이 기점 역할을 한 막판 득점 덕분에 1-0으로 승리, 반등에 성공하며 승점 22를 쌓아 라리가 10위로 올라섰다. 레알 바야돌리드는 승점 17로 15위에 자리했다.

이강인은 경기 후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 평점에서 팀 동료 중앙 수비수 안토니오 라이오(7.7점) 다음으로 출전 선수 중 두 번째로 높은 7.2점을 받았다. /연합뉴스

조규성 독일 프로축구 마인츠 입단 가능성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25·전북)이 독일 프로축구 마인츠에 입단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신문 이브닝스탠더드는 7일 "한국의 스트라이커 조규성이 이달 이적 시장에서 스코틀랜드의 셀틱 대신 독일 마인츠로 이적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규성은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와 경기에서 혼자 두 골을 터

뜨리며 활약했다.

월드컵에서 두 골을 넣은 조규성은 유럽 축구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의 지난해 12월 기준 이적료 추정치에서 250만 유로(약 33억5000만원)를 기록했다.

이는 월드컵 이전인 지난해 11월 140만 유로에 비해 불과 한 달 사이에 한국 돈으로 14억7000만원이 급등한 액수다.

이 매체는 "마인츠가 조규성 영입 경쟁에서 스코틀랜드의 셀틱이나 미국 팀들과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고 전망했다.

마인츠에는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재성(30)이 속해 있다.

이브닝스탠더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선수로 뛰었고, 현재 전북의 테크니컬 디렉터인 박지성이 영국 런던에서 이적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조규성 측은 21일 분데스리가 리그 일정이 재개되기 전에 가급적 빨리 이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